

# “장흥댐, 잡을 고기없어 어업허가 못 내준다”

郡 용역 결과, 붕어·뱀장어 등 개체수 부족

지역 어업인과 마찰 해소 전망

장흥댐(탐진호)내 어족자원 분포량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민원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댐 관계자, 해당지역 이장 자치

허가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수(水)생태계 전문 용역업체인 (주)코비에 의뢰해 장흥댐내 수계에서 서식하는 어류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에 걸친 조사결과 경제성이 고가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장흥댐내 어업허가는 어업인의 경제성과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댐내에서 내수면 어업을 허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댐내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장흥댐내 어업허가는 어업인의 경제성과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댐내에서 내수면 어업을

이 지난 2009년의 가뭄현상으로 산란기인 4~6월에 평균 저수율이 30.8%에 그쳐 각종 어류들이 산란을 못 한데다 먹이자원(플랑크톤) 부족해 개체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댐내 어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성 어종의 우점종인 붕어의 경우 대부분 3년생 이하 개체로, 가뭄으로 인해 산란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 관계자는 “용역결과 경

제성 있는 어족자원이 없어 내수면 어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장흥댐 어업허가를 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원 거주민인 김모(50·강진군 움천면)씨가 장흥군을 상대로 낸 내수면 어업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카페와 도서관을 접목시킨 남양유업 나주공장 카페도서관이 지역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카페도서관 내부.

## 차 마시며 소통하고 책도 보고

남양유업 나주공장 ‘카페도서관’ 인기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남양유업

나주공장내 카페 도서관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유업 나주공장 F·D동에 위치한 카페 도서관은 727.2㎡(212평) 규모로 1층은 차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고, 2층은 1만5000여 권의 책을 갖춘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견학을 통한 ‘체험과 소통의 장’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남양유업은 나주시와 나주시 직업훈련원을 통한 바리스타 교육원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카페와 도서관을 접목시킨 카페도서관은 커피 역사와 만드는 과정을 한눈에 보면서 차를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다’며 “지역 차와 독서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장성 찰토마토 선별

장성군 남면 분향리 주민이 찰토마토 생산단지에서 출하를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작황이 좋고, 가격도 10kg에 7만~9만원 선으로 높은 편이다.

(장성군 제공)

## 여수 밤바다 만끽 유람선 관광 인기

### 1월 이용객 3배 증가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수 지역 유람선 이용객은 1만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95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전체 유람선 이용객은 3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오동도 유람선, 국동유람선, 한려수도, 오동도 모터보트협회 등 4개 선사가 부정기 해상운송사업 2척, 유선(유람선)사업 5척, 모터보트 10척을 각각 오동도와 여수엑스포역, 돌산대교 선착장에서

운항하고 있다. 여수시는 유람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관광 종합대책 보고회를 여는 등 유람선 추가 확보를 선사 측과 협의했다.

한려수도 선사에서 168명 정원의 ‘고군산호’를 새로 도입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거북선호의 정원도 306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화신해운과 신아해운에서는 350명 정원의 유람선을 새로 제작하고 있으며, 오동도 유람선 측에서도 새로운 유람선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보성 다향제 5월 2일 차문화공원서 열린다

### 찻잎따기·찻사발 만들기 체험 등 행사 다양

차문화 대표 축제인 보성 다향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한국 차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보성 다향제는 국내 최대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이 고품질 녹차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녹차 흥보와 차 문화 보급, 차 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 녹차’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향제는 달신제, 한·중 도자기 특별전 개

최, 한국 명차선정대회, 전국 학생 차 예절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차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체험행사는 차 만들기와 찻잎따기, 헛차 무료시음, 다례시연, 찻사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 명성에 걸맞게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합동결혼식, 일립산 철쭉행사, 7080 주역의 거리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또 녹돈·벌교꼬막·녹차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기획 판매전·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안내소도 설치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 명성에 걸맞게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 장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추진

장성군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 참여업체에 경리와 사무 보조, 생산·기술직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청년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근무 기간인 3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가로 6개월 동안 같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참여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 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차별화된 차와 학생들의 견학을 통한 ‘체험과 소통의 장’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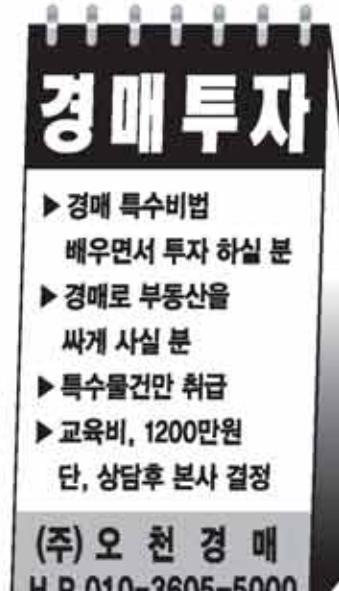


디에스중공업 방문

최근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 흥운기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사진 맨 위쪽)이 지난 19일 중소기업 자금지원 협의회 암암군 삼호읍 디에스중공업(주) 현장을 찾아 김성길 대표로부터 사업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디에스중공업 제공)

# 급 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29P  
→ 매매가-5300만원(일시불)  
→ 문의, 010-4667-9300



경매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법적보장 / 전화상담 사절!

## 사정상 “매매”

###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 시세-24억원
- ▶ 임 대-보증금 3억원에 월1,3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프랜차이즈 커피숍 임대 완료  
5층 골프연습장 임대 계약
- ▶ 대 출-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23억원, 이전비 없음
- ▶ 수 입-6억원 투자에 월7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